

‘식민지의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펴낸 오연호씨

미혼모에 의한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저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국은 위기경고 체제를 갖춘 나라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식인들이 여론 형성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한 가난한 대중들에 의한 대혁명은 탈출구를 통해 싹을 없애고 합법적 절차에 의한 소혁명은 장려해 절묘하게 국가통합을 이루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의 자치와 독립이 보장되면서도 상품과 자본에 의해 강고하게 통일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고 밝힌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미국에 뒤처진다고 비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친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반미’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배우지 말 것은 철저히 버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의 ‘미국 바로 알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때까지 식민지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이어질 것이다. — 박천홍 기자

《말》지 오연호(34) 기자가 2년 8개월 동안의 미국체류를 마치고 돌아와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해냄)라는 책을 펴냈다. 미국 리전트 대학 석사과정을 밟는 동안 《말》지와 MBC라디오의 <세계는 지금>을 통해 보낸 통신문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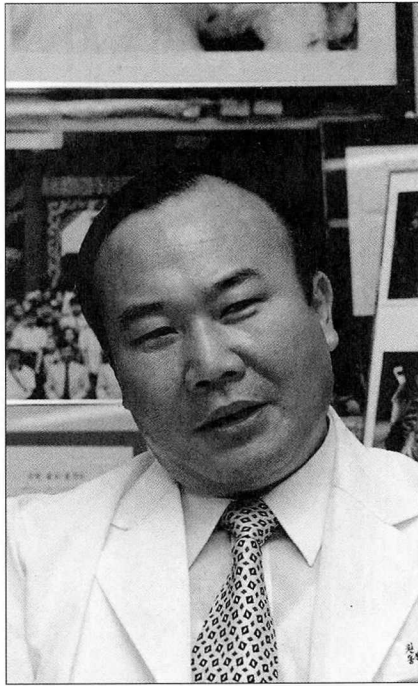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한미 관계사 속의 미국’이라는 영역에 도전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일부였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해온 미국은 왜 망하지 않을까, 미국 속의 어떤 것이 미국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미국을 찾게 한 동기였습니다.”

이 책은 86년 여름 전국적 중·고등학생들에게 미국의 실체를 고발해 띄운 편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반미 기자’에서 ‘친미와 반미를 능숙하게 배합하길 원하는 기자’로 바뀐 그가 다시 ‘식민지의 아들에게’ 쓰는 긴 편지다.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에게 미국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의 나라였다.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지만 분쟁지역에 무기를 파는 나라, 자국민들의 건강은 챙기면서도 전세계에 담배를 수출하는 나라, 천의 얼굴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협약을 주도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 사람은 미국 시민인 조디 윌리엄스였습니다. 악마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이 오묘하게 조화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마약의 50%를 소비하고 한 해에 130만명이 총구 앞에서 위협받는다.



동물에게 배우는 정신적 성숙

《애완동물 기르기》 펴낸 윤신근씨

심하면 불임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진 독소플라즈미는 ‘추상적인’ 균일 뿐이다. 사람들의 부주의가 동물들을 병에 걸리게 하고 다시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애완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특히 정서적인 데 있지요.”

자연과 떨어진 도시 아이들은 애완동물의 탄생과 성장, 노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적 성숙을 이룬다는 것.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대단찮은 생각으로 들어선 수의사의 길이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자랑스럽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연구로 학문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지만, 사람들과 동물을 가깝게 이어주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싶습니다.”

《세계애견대백과》, 《애견 기르기》 등 그동안 펴낸 책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소년 한국일보> 등에 애완동물 상담역으로 사람들과의 소통로를 잃지 않으려는 윤원장은 우리나라 토종 진돗개와 조랑말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 이현주 기자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온 역사는 오래다. 처음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은 고기를 얻거나 털 것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리적인 이유에서였지만 사람과 동물은 곧 친구가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애완동물은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연히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윤신근 원장(45, 윤신근애견종합병원)은 《애완동물 기르기》(대원사)를 통해 애완동물에 들어야 하는 정성과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애완동물은 사람과 잘 어울리지만 분명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과는 다른 그 나름의 서식환경과 좋아하는 먹이, 질병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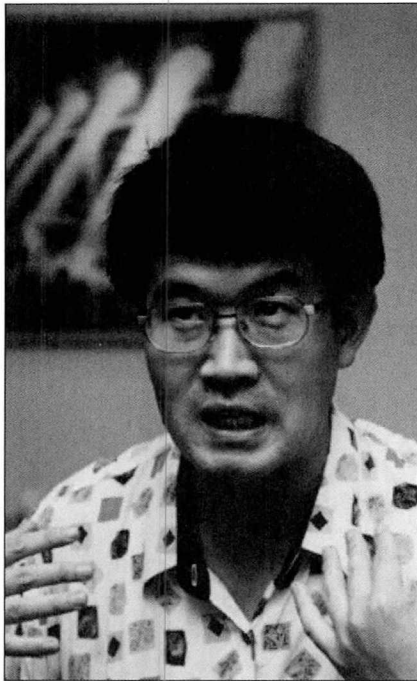
“애완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동물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기니피그, 이구아나, 햄스터, 혐오의 대상이었던 뱀까지, 동물 고르기부터 흔히 걸리는 질병, 먹이와 돌볼 때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 거북이는 딱딱한 등껍질과는 달리 약한 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내장이 상한다. 또 자연광에 노출된 이구아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람쥐는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

“나쁜 병을 옮긴다고 애완동물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편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곰팡이성 피부 질환이 대부분인데, 동물의 상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고양이와 옮기는 것으로,





유행 속을 탐방하며 만나는 역사

《유행 속에 숨어 있는 역사의 비밀》
펴낸 박영수씨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역사를 전공한 그는 대부분의 역사가가 본격 연구서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음을 간파하고 테마별 역사·문화서를 펴냈다. 그동안 책으로 펴낸 테마는 색채문화·역사유래·세계 이름문화·인체문화·얼굴문화 등이다.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저작으로 펴내는 일을 하면서 '잡학'이라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이 접하는 역사가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씌어진 책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펴낸 딱딱한 글이 독자를 역사에 몰입시키지 못하는 역기능도 있음을 지적한다.

“쉽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역사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역사는 바로 대중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읽힐 수 있는 역사서를 쓰기 위해 진을 빼며 자료를 뒤적인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글쓰기를 실행하는 그는 8월에 또다른 역사서 《지식 속의 지식》을 펴낼 예정이다. — 오완진 기자

유행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갈구하는 욕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유행을 알면 시대적 조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유행 속에 숨어 있는 역사의 비밀》(살림)을 펴낸 문화칼럼니스트 박영수(38)씨는 유행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또다른 방편이라고 역설한다.

“유행은 대다수의 공통된 느낌이 표현된 것입니다. 유행계층의 누군가가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 유행을 창출하는 것은 대중입니다.”

대중이 만드는 유행은 바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유행을 알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역사성을 이해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좀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 로마 여인의 헤어스타일을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요즘 한참 말쑥인 촌지가 기원전에 벌써 사회문제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잊혀진 과거를 들춰낸다. 또한 유행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얼룩을 가리기 위해 청색 물을 들인 옷을 입은 것에서 청바지가 탄생했고 프랑크 소시지의 기름이 자꾸 묻어 그 위에 빵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핫도그의 유래다.

“원래 없었던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이지요. 주변에 산재한 많은 것도 유행에서 얻어진 산물입니다.”

유행 속에 숨어 있는 203가지 비밀들을 끄집어낸 또다른 이유는 역사 해석의 새로운 키워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의 역사 해석 키워드는 역사를 고뇌하며



도서관 신서원

종로구 교남동 47-2 협신빌딩 209호
전화 : 739-0222-3 팩스 : 739-0224

0. 史料

- 001~2 북역삼국사기(상·하)
김부식·고전연구실
(상) 15,000원 / (하) 12,000원
- 003 신편 삼국유사
일연·이상호, 12,000원
- 004 북역 삼국유사
일연·이상호, 12,000원
- 005 경국대전연구
윤국일, 15,000원
- 006 고려사색인(1)
연세대 국학연구원, 30,000원
- 007~017 북역고려사기-4(世家) 5-7
(志)/8-11(열전)
정인지 외·고전연구실
1~4·5·7·9권 각 14,000원 /
6·8·10·11권 각 13,000원
- 018 경제육전집록
연세대 국학연구원, 12,000원
- 020 삼국유사교감연구
하정룡·이근직, 25,000원

1. 通史·概說書

- 101~2 조선토지제도사(상·중)
박시형(상) 12,000원 / (하) 14,000원
- 103 조선봉건시대농민의 계급구성
김석형, 13,000원
- 104 세계사의 기초지식
김태승 편역, 10,000원
- 105 역사학개론
이상신, 10,000원
- 106 사료한국사
이연복·윤종일, 15,000원
- 107 동아사상의 보수와 개혁
이춘식 편, 7,000원
- 109 한국역사상의 라이벌
김갑동, 8,000원

3. 考古·古代

- 201 고구려벽화고본
최무장·임연철, 20,000원
- 202 발해사의 이해
임상선 편역, 10,000원
- 203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최근영, 6,000원
- 204 고고학에의 접근
최풍룡, 6,000원
- 205 한국사의 이해(고대·고고1)
윤내현 외, 8,000원
- 206 고고학발달사
클린 다니엘·김정배, 7,000원
- 207 발해의 대외관계사
한규철, 12,000원
- 208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9,000원
- 209 한국사의 시대구분
한국고대사연구회, 8,000원
- 210 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한국고대사연구회, 10,000원
- 211 신라수공업사
박남수, 12,000원
- 212 가야제국의 철
가야문화연구소, 8,000원

- 213 삼한의 사회와 문화
한국고대사연구회, 9,000원
- 214 한국고대사회의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회, 13,000원
- 215 가야제국의 왕권
가야문화연구소, 8,000원

3. 中世史

- 301 한국사의 이해(조선시대 1)
송병기 외, 9,000원
- 302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최효식, 12,000원
- 303 실학자 유득공의 고대사인식
정진현, 10,000원
- 304 조선시대수군
장학근·이민용, 20,000원
- 305 초려 이유태의 향약과 정훈
이해준, 9,000원
- 306 고려 무인정권기 연구
황병성, 12,000원

4. 近·現代史

- 401 한국사의 이해(근·현대1)
이현의 외, 8,000원
- 402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사연구
김기승, 8,000원
- 403 한국민족주의와 여성운동
이윤희, 8,000원
- 404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하원호, 10,000원
- 405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김양식, 11,000원
- 406 한국독립당연구
노경재, 10,000원
- 407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하원호, 10,000원
- 40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김인호, 20,000원

5. 東洋史

- 501 중국고대사의 전개
이춘식, 12,000원
- 502 중국역사의 발전형태
마크엘만·이춘식 외, 8,000원
- 503 인도민족주의 운동사
조길태, 8,000원
- 504 중국의 신사
장중래·김한식 외, 7,000원
- 505 일본의 봉건제
페터두스·양필승·나행주, 5,000원
- 506 동아시아의 기초지식
김태승 편역, 10,000원
- 507 아시아생신방식
중국사회과학원·이상규, 8,000원
- 508-509 중국역사(상·하)
중국역사연구실
(상) 10,000원 / (하) 9,000원
- 510 중국사와 불교
· 아서 라이트·양필승, 5,000원
- 511 전통중국인의 일상생활
자크 제르네·김영제, 7,000원
- 512 당송재정사
김영제, 15,000원

- 513 중국사의 시스템론적 분석
김관도·하세봉, 6,000원
- 514 일본의 중국사논쟁
타니카와 미케오·정태섭 외, 10,000원
- 515 중국중세사
미야자키·임종혁 외, 10,000원
- 516 중국통일·중국분열
갈검용·숙사연구회, 7,000원
- 519 중국경제지리
후신·윤원호, 12,000원
- 520 중국역사의 개혁·개방사
장쑤어·오재환, 10,000원
- 521 중국공업화의 역사
이케다 마코토 외·김태승, 10,000원
- 522 중국경제사
퍼킨스·양필승, 9,000원
- 523 홍콩
하마시다 다케시·하세봉 외, 7,000원

6. 西洋史

- 602 서양사의 기초지식
김태승 편역, 9,000원
- 603 개정서양사학사
이상신, 20,000원
- 604 프랑크농촌사의 기본성격
마르크 블로크·김주식, 10,000원
- 605 고대아테네 정치제도사
최자영, 12,000원
- 606 매너의 역사
노버트 엘리야스·유희수, 12,000원
- 607 독일 제2제국
한스올리히 벨리·이대원, 15,000원
- 608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베어드·양재열·정성일, 10,000원
- 609 마르크스 이후
테렌스 불·석영중, 9,000원
- 610 스탈린혁명
로버트 대니얼스·석영중, 8,000원
- 611 베버와 마르크스
오오즈카 히사오·임반석, 4,000원
- 612 마키아벨리와 국가이성
진원숙, 15,000원
- 613 중세유럽의 도시
앙리 피렌느·강일휴, 7,000원
- 614 서양사산책
진원숙, 9,000원
- 615 초기사회운동의 이론
한기영, 5,000원
- 616 니미츠
포터·김주식, 20,000원
- 617 약탈의 역사
패리·김성준, 10,000원
- 618 분절된 노동, 분할된 노동자
고든 외·고병웅, 9,000원

7. 其他

713~715 신석호전집(상·중·하)
치암신석호전집간행위원회,
전집 100,000원

- 8. 아시아叢書(아시아총서는
총10권으로 예정되어 있
으며 현재 간행된 책은 다음
의 3권뿐입니다)
- 801 아시아역사와 문화(중국사 고대)
박건주, 9,000원
- 804 아시아역사와 문화(중국사 근세Ⅲ)
정성일, 9,000원
- 805 아시아역사와 문화(중국사 근현대)
하세봉, 11,000원